



2012 ISSUE PAPER

##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초중등학교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수행과제명 | 성평등 실천 국민 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V):  
초·중등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안상수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초·중등학교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수행과제명  성평등 실천 국민 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Ⅳ):  
초·중등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안 상 수 연구위원  
☎ Tel: 02-3156-7188  
✉ e-mail: ahnss@kwidimail.re.kr

### 요약

초·중등학교 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성별 분리, 성역할 불균형 등 성평등 실천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성평등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문화, 의식 부문의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1 배경 및 문제점

우리 사회의 성별 불균형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성별영향평가제도나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일상적인 행위나 활동 속에 녹아있는 성불평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음 우리사회 여러 영역에 걸쳐 상존하는

성별간 불평등 요소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시적 수준의 제도적·정책적 개선노력과 함께 개인의 일상활동이라는 미시적 수준에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이를 가시화시켜내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 가정생활영역, 2010년 직장생활영역, 2011년 대학생활영역 실태연구에 이은 초중등학교영역에 대한 연구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서 가정생활영역, 직장생활영역, 학교생활영역으로 구분. 이들 각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역할수행과 분배, 각 영역들 속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의식, 성평등적 행동 실천, 대인관계 및 이성관계, 삶의 질과 포부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각 영역별로 성별요인이 어떠한 양상으로 관여되고 있는지, 성별 불균형을 유지·고착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로 이어져 왔음. 이번 연구는 2011년 대학생활시기의 성평등 실천 실태조사의 후속연구의 성격을 갖는 연구로서 초중등학교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관계적 상황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성별 수업 및 교내 활동 참여 실태, 교우관계, 성평등의식, 성평등 관련 실천 양상들을 알아보고자 했음.

특히 이번 초중등학생대상의 연구는 성역할 태도 혹은 성역할 분화가 진행 중이거나 미분화 단계에서 분화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평등의식과 실천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시기에 성평등 실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성평등정책 개입시기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또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성별, 연령별로 성평등의식, 성역할 정체성의 차이를 측정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공적/사적 영역의 다양한 대상 연령층을 고려한 성평등 실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다양한 대상 연령층을 고려한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 마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영역에서 성별 간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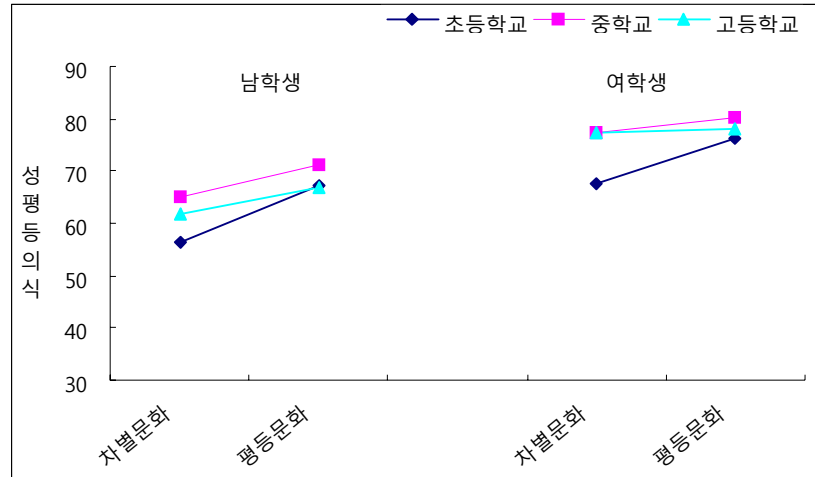
과 불평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려는 제반 노력, 활동 및 행위들을 성평등 실천이라 정의하고, 학교 제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별분리 현상과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평등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검토하였음. 성별, 학교급, 남녀공학, 지역규모, 권역별 대표적 표집을 통한 7792명의 학생, 1800명의 학부모, 1200명의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와 성평등 실천의 한계와 장애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55명(6집단)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시행하였음.

## 2 연구결과

### 가.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성평등의식

▣ 초중등학생들의 성평등의식은 학교문화와 양육환경의 성평등 정도에 비례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특히 남학생들에게 학교의 성평등 문화 여부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차이가 크게 남. 또한 평등양육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성평등의식이 차별양육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높았고, 양육환경의 영향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가정의 문화가 성평등한 방향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학생들의 성평등 실천에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학교급이나 대상 별로 성평등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차별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줌.



■ 그림 1 ■ 성별 및 학교급별 성평등 문화에 따른 성평등 인식

■ 온정적 성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정내 성평등 양육환경

- 학교의 성평등 문화 및 성평등한 양육환경 여부별로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문화가 평등할 때 적대적 성차별, 온정적 성차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정의 양육환경의 영향은 적대적 성차별 의식과 온정적 성차별 의식에 대해 상이한 효과를 보임. 즉, 평등 양육 환경의 남녀학생들은 불평등 양육 환경의 학생들에 비해 적대적 성차별 의식은 현저히 낮았으나 온정적 성차별 의식에서는 불평등 양육 환경의 학생들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이는 온정적 차별 행위가 가정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성평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

## 나. 초중등학교 성별분리 활동 실태 및 실천

■ 학교 생활에서 여전히 뚜렷한 활동영역별 성별분리

- 초·중·고등학교 남녀 총 7792명을 대상으로 초중등학교 내 활동(학

교생활, 교우관계 및 일상생활, 가정생활)의 성별분리 실태를 알아본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선생님 심부름 하기’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남녀학생의 차이가 있음.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및 일상생활 영역의 경우 ‘점심 시간/쉬는 시간 운동장에 나가서 놀기’,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친구들과 pc방가기’ 등의 외부 동적인 활동들은 남학생의 참여가 높음. 반면에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떨기’와 ‘수업시간에 수업내용 필기 및 노트정리’, ‘문자,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 등의 정적인 내부 활동은 여학생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성역할 분리가 남녀 공학과 남녀 합반에서 더 크게 나타남

- 남녀공학 여부와 공학 내 합반 여부에 따른 성별분리활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영역, 교우관계 및 일상생활영역, 가정생활영역의 대부분의 활동의 참여정도에서 남녀공학 학생들이 별학 학생들에 비해, 남녀합반의 학생들이 별반의 학생들에 비해 활동의 특성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특히 ‘교실 및 학교에서 무거운 물품 옮기기’에서 남녀공학 내 합반의 여학생이 소극적인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공학 내 물리적 힘이 필요한 활동 영역 참여에서 여학생들의 참여가 소극적임을 보여줌. 이는 남녀 학생이 학교에서 서로 분리되어 생활할 때에 비해 남녀 함께 생활할 때 성고정관념적인 역할 분리가 더 분명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성고정관념적 역할 배분이 두드러지는 학교생활

-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학급의 담임선생님이라는 가상의 직위를 주고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학교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분배하게 하여 성별에 따른 역할분배 정도를 살펴봄. ‘환경미화 때 교실꾸미기’, ‘영어 말하기 대회 참가시키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여학생에게 역할을 많이 분배하였으며 ‘무거운 물건 옮기기’, ‘수학, 과학,

발명 경시대회 참가시키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남학생에게 역할을 많이 분배. 이 두 가지 역할 배분은 고학년이 될수록 강화되어 성고정관념적인 역할 분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제품 손보기는 남자의 일, 밥짓기는 여자의 일로 구분하는 학생들
  -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가상의 결혼 상황을 주고 가사활동에 대해 학생 자신이 어느 정도 행할 것인지를 응답하게 하여 성별에 따른 역할분배 정도를 살펴봄. 그 결과, 남녀학생 모두가 '전기, 가전제품 손보기'가 남성의 역할, '자녀 등교 준비시키기', '빨래하기'는 여성의 역할, '자녀와 놀아주기'의 부분은 남녀 모두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의 가사활동 실태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가정생활 성고정관념에 부모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다. 학교생활과 성평등 문화

- 교사들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양성평등교육 관련 경험이 있을수록 학교문화를 더 성평등하다고 인식
  - 전체 교사들이 응답한 학교 문화의 성평등 수준 분석에서는 남교사보다 여교사들이, 일반대학교 출신 교사보다 교육대학교 출신 교사가 학교가 더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평등하다고 응답하였고 상위학교급으로 갈수록 평등 지각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또한 남녀별학에 비해서는 남녀공학에서, 사립보다는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이, 연령이 높을수록, 최근 1년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 학교의 교사들이, 양성평등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재직학교에 양성평등교사가 있는 학교의 교사들이, 재직 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의 교사들이 학교 문화를 더 성평등한 것으로 응답.

■ 고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 실시 비율이 낮음

- 학생의 양성평등 고취를 위하여 실시된 교육 및 행사의 참여 실태를 알아봄. ‘양성평등 글짓기’는 대략 전체의 50% 정도의 학생들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참여비율이 더 높으며,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양성평등 주제 창의적 체험활동’과 ‘양성평등 주제 초청 강연’의 경험은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도 20% 안팎의 학생들만이 참여 경험이 있었음. 법정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는 전체 학교급별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었으며, 중학교 학생들은 80% 정도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의 양성평등 관련 교육 및 행사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도시, 사립학교, 남녀별학의 교육 실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양성평등관련 교내 행사 참여 실태

문항		참여경험 유		참여경험 무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양성평등 글짓기	초등학교(2413)	41.0%	46.5%	59.0%	53.5%
	중학교(2629)	53.2%	60.1%	46.8%	39.9%
	고등학교(2682)	35.7%	50.2%	64.3%	49.8%
양성평등 주제 창의적 체험활동	초등학교(2413)	22.0%	21.6%	78.0%	78.4%
	중학교(2629)	24.6%	20.6%	75.4%	79.4%
	고등학교(2682)	15.8%	11.0%	84.2%	89.0%
양성평등 주제 초청 강연	초등학교(2413)	19.6%	14.9%	80.4%	85.1%
	중학교(2629)	23.4%	18.5%	76.6%	81.5%
	고등학교(2682)	19.1%	14.5%	80.9%	85.5%
성희롱 예방 교육	초등학교(2413)	66.8%	69.8%	33.2%	30.2%
	중학교(2629)	76.6%	80.6%	23.4%	19.4%
	고등학교(2682)	67.5%	72.8%	32.5%	27.2%



■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 지각은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지식 정도와 비례

-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대상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80%를 넘는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교사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급별로 상위학교로 갈수록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특히 ‘양성평등교육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양성평등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을수록, ‘최근 1년간 재직학교의 양성평등교육 실시여부에서 실시했다고 응답한 교사일수록 학생들의 양성평등 교육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양성평등에 관련된 지식 및 경험이 있을수록 더욱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대상의 양성평등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시급함은 인식하지 못함

- 양성평등교육 연수 횟수를 묻는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교사들이 연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대학 재학시에도 양성평등 관련 수강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17.2%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양성평등교육 연수를 미희망하는 이유는 ‘양성평등교육 연수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라는 응답이 남녀 교사 모두 절반을 넘어 교사들은 직접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자신이 교육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남.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 절대 다수의 교사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1,2순위를 합해도 10% 미만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기는 해도 중요도나 시급성에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수동적인 운영

- 양성평등교육 시범학교 지정 실태에서는 응답자의 약 2%가 현재 시범학교라고 응답하였고, 양성평등 전담교사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5.3%를 차지함. 비교적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상대적으로 입시의 부담도 없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용이 가능한 초등학교에서 양성평등 전담교사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양성평등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음. 또한 양성평등교육 전담교사의 활동 실태를 묻는 문항에서 75% 이상의 교사들이 관련 행사 관리를 주로 한다고 응답했고,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한다’는 응답은 10% 초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양성평등 전담교사의 활동 내용의 비중을 변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쉽게 활용할 수 있고 현 실태를 잘 반영하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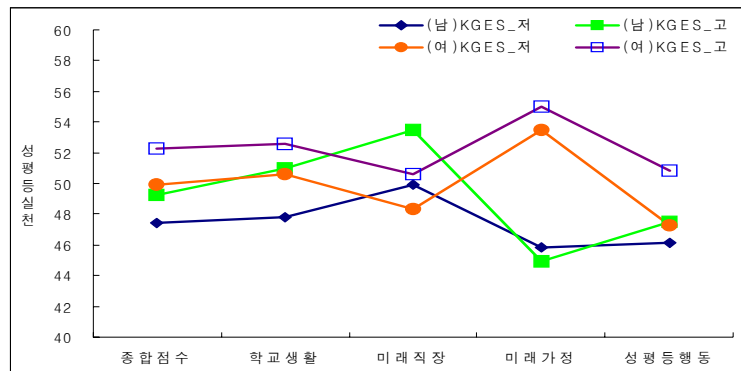
- 교사들은 양성평등교육의 개선 방안으로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을 가장 우선시함. 앞서 연수를 미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양성평등교육 연수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교사들은 현재 양성평등교육의 콘텐츠에 변화가 필요하며,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라. 성평등의식과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실천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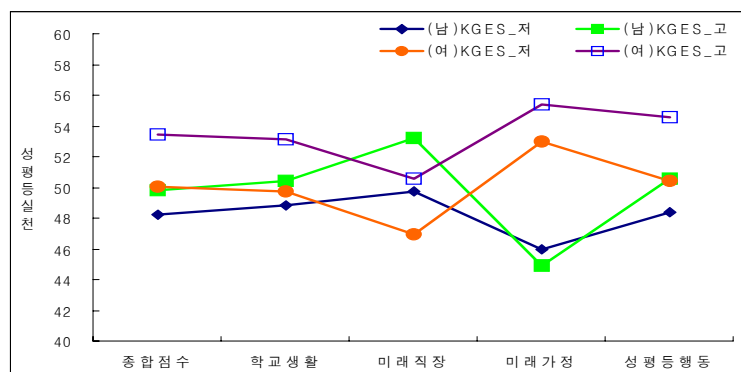
■ 성평등의식이 성평등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 성별에 따라 달라

- 성평등의식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서 성평등 실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평등 실천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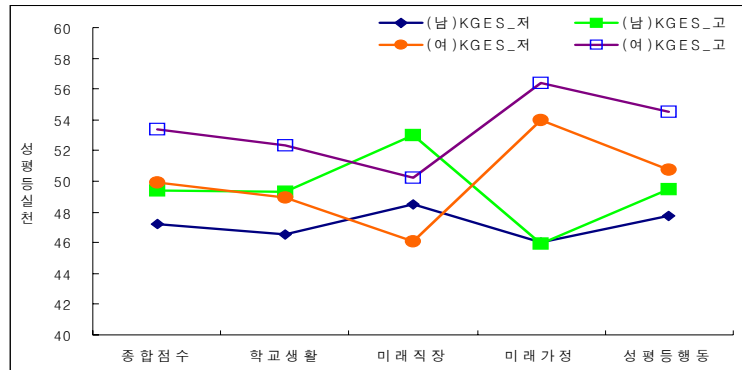
였지만, 공통된 특성은 남학생들의 성평등의식 고저에 따른 실천의 차이보다 여학생들의 성평등의식 고저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그 폭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 즉 성평등의식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간 성평등 실천의 차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비교적 컸지만, 중학교로 가면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학생들은 초중고교를 거치는 동안 성평등의식 고저 집단간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초등학교 남녀학생〉



〈중학교 남녀학생〉



〈고등학교 남녀학생〉

■ 그림 2 ■ 성평등의식 고저집단×학교급에 따른 성평등 실천 비교

■ 성평등 실천의 성별격차 사적 영역보다 공적 영역에서는 감소

● 성평등의식의 고저에 따른 실천의 차이는 학교생활이나 미래 직장 생활과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남녀 성별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에 미래 가정생활이나 성평등 행동 실천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의식 고저의 영향이 사회적 시선이나 규범적인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 이는 성평등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이나 규범적인 성평등 문화가 성평등 실천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가사활동 성역할 분화, 초등학교 시기 이미 형성, 결혼 직전까지 지속

● 일반국민 대상의 가사활동 참여 실태와 대학생 및 초중고교 학생들의 가사활동 참여 의사를 구체적인 활동별로 비교한 결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기혼자들의 가사활동 참여량에서, 남성의 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전기, 가전 수리’ 활동에 대해서만 기혼 남성들의 참여가 여성에 비해서 크게 높고, 나머지 영역에서 남성의 참여는 매우 낮은 전형적인 성별분화 양상을 보여줌. 남성

의 성역할로 정형화된 ‘전기, 가전수리’ 활동은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 시기에 이미 남자의 참여 의사는 매우 높고, 여자의 참여 의사는 매우 낮아 성별분화가 상당히 진행된 양상을 보임. 여성의 성역할로 정형화된 ‘쌀 씻어 밥 짓기’, ‘빨래개기’, ‘자녀 등교 준비’의 경우, 여자의 참여 의사는 높고, 남자의 참여 의사는 낮은 형태의 성별분화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이미 나타났으나, 그 진행 정도는 초등학교에서 성인 미혼기까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다가 기혼에 이르러 급격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임.

■ 가사활동 성역할 분화를 늦추는 높은 성평등의식과 낮은 온정적 성차별의식

● 가사활동 유형별로 성역할 분화를 촉진 또는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서 초중등학교 학생의 성평등의식과 양가적 성차별의식을 각각 검토한 결과, 성평등의식 고저에 따라, 또한 양가적 성차별의식 유형에 따라, 성역할 분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모두 낮은 집단(‘HS저,BS저 집단’)일수록 성역할 분화의 진행에 지연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높은 성평등의식 속에 내포된 온정적 성차별의식 제거 필요

● 성역할 분화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에서 높은 성평등의식 속에는 온정적인 형태의 성차별의식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성평등의식이 높다는 것이 성역할 이분법적인 구도를 깨트리거나 재편하는 쪽으로 성평등 실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높은 성평등의식 속에서도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제거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의 성평등 실천에 부합되는 것임을 시사.

- 성평등한 학교문화, 학생들의 성평등 실천에 촉진요인으로 작용
  - 성평등 실천을 예언하는 변수들 가운데 학교문화가 학생들의 성평등 실천을 정적으로 예언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문화적 개선 노력이 학생들의 미래 직장 생활에 대한 성평등 실천이나 평소 학생들의 성평등 관련 활동이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학교 내의 성평등적인 규범이 학생들의 성평등한 의식과 행동을 유발하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해 줌.
  
- 교내 양성평등 교육관련 활동이 성평등 실천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 관련 활동 경험(예컨대, 양성평등 글짓기, 양성평등 주제 창의적 체험활동, 양성평등 주제 초청 강연, 성희롱 예방교육) 정도가 ‘성평등 활동 및 행동’ 영역에서 성평등 실천을 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타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을 예언 정도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미래 직장생활 영역이나 미래 가사활동 영역, 수업 및 교내 활동 영역 등에서 평등한 역할분배 양식을 나타내는 성평등 실천에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아버지 식생활부문 가사활동 참여가 학생의 성평등 실천 촉진
  - 학생-학부모 대응표집 자료를 통해 학생의 성평등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아버지의 식생활 부문에서 가사활동 참여가 학생의 성평등 실천을 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아버지의 식생활 참여가 학생들의 성평등 실천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급별로 비교하였을 때,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예언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주목됨.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가사활동 참여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평등 실천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시사. 아버지의 가사활동 참여가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활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

쳐 유지하는 일상화된 성평등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자녀의 성평등 실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줌.

■ 양성평등교육 연수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 성평등 실천 더 높아

- 교사의 ‘양성평등교육 연수 유무’가 학생들의 성평등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연수를 받은 담임교사일 경우에 그렇지 않은 담임교사일 때보다 학생들이 성평등 실천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 또한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보다는 초등학교 시기에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실천에 있어서 교사의 양성평등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성평등의 실천에 있어서 촉진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초등학교처럼 학교급이 낮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

■ 교사의 높은 양성평등교육 필요성 인식, 초등학생 성평등 실천에 영향

- 교사의 ‘양성평등교육 필요성 인식’ 변수가 학생-교사 대응표본의 전체 학생의 성평등 실천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결과에서 교사가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학생들이 성평등 실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가 양성평등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가질수록 학생들에게 유무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

## 마. 성평등 실천 촉진 및 저해요인에 관한 이론적 모형 검증

■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의 통합모형, 의식-실천 연계성 제시

- 성평등 실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평등 행동의도’는 성평등의식에 의해서 가장 잘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평등 의식의 영향은 ‘주관적 규범’이나 ‘행위에 대한 태도’, ‘행동에 대한

Figure 1 is a path diagram illustrating the research model. The variables and their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as follows:

- 성별지위** (Gender Status) predicts **성별 집단정체성** (Gender Group Identity) with a coefficient of .02.
- 성별지위** predicts **성평등의식** (Gender Equality Awareness) with a coefficient of .03\*.
- 성별지위** predicts **행위의도** (Behavioral Intent) with a coefficient of -.04\*\*.
- 성별지위** predicts **성평등실천** (Gender Equality Practice) with a coefficient of -.03\*\*.
- 성별 집단정체성** predicts **성평등의식** with a coefficient of .00.
- 성별 집단정체성** predicts **주관적규범** (Subjective Norm) with a coefficient of .03\*\*\*.
- 성별 집단정체성** predicts **행위의도** with a coefficient of -.07\*\*\*.
- 성별 집단정체성** predicts **성평등실천** with a coefficient of -.04\*\*\*.
- 지위합법성** (Status Legitimacy) predicts **성평등의식** with a coefficient of -.35\*\*\*.
- 지위합법성** predicts **행위의도** with a coefficient of -.13\*\*\*.
- 지위합법성** predicts **성평등실천** with a coefficient of -.03\*\*.
- 지위안정성** (Status Stability) predicts **성평등의식** with a coefficient of -.30\*\*\*.
- 지위안정성** predicts **행위의도** with a coefficient of -.12\*\*\*.
- 지위안정성** predicts **성평등실천** with a coefficient of -.14\*\*\*.
- 성평등의식** predicts **주관적규범** with a coefficient of -.41\*\*\*.
- 성평등의식** predicts **행위의도** with a coefficient of .26\*\*\*.
- 성평등의식** predicts **성평등실천** with a coefficient of .10\*\*\*.
- 주관적규범** predicts **행위의도** with a coefficient of -.09\*\*\*.
- 주관적규범** predicts **성평등실천** with a coefficient of -.13\*\*\*.
- 행위의도** predicts **성평등실천** with a coefficient of .28\*\*\*.
- 행위태도** (Behavioral Attitude) predicts **행위의도** with a coefficient of .16\*\*\*.
- 행위태도** predicts **성평등실천** with a coefficient of .05\*\*\*.
- 행동통제** (Behavioral Control) predicts **행위의도** with a coefficient of .12\*\*\*.
- 행동통제** predicts **성평등실천** with a coefficient of .05\*\*\*.

- 남성 우월적인 ‘지위의 안정성 지각’, ‘합법성 지각’이 성평등의식 저해
  - 남성의 우월적 지위가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성평등의식이 낮고, 남성의 높은 지위가 정당한 근거에서 얻어 진 것으로 지각할수록, 즉 지위 합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성평등의식이 낮았음.
- ‘지위의 안정성 지각’, ‘합법성 지각’에서 성별차이 뚜렷하게 나타나
  - 사회 정체성 이론의 관점의 변수를 중심으로 중요한 성별차이들을 알아 본 결과, ‘지위 합법성 지각’과 ‘지위 안정성 지각’에서 성별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남. 즉 남학생들은 현재 남성의 우월한 지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근거에서 얻어진 결과로 지각할수록 성별 집단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학생들은 합법성 지각 정도가 성별 집단 정체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음. ‘지위 안정성 지각’이 성별 집단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위 합법성 지각’의 결과와는 반대로 여학생들에게는 유의한 부적 예언을 하였지만,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더라도 정적인 예언을 미약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여학생들은 남성의 지위가 미래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별 집단 정체성은 높았음. 남학생들의 경우, 반대로 남성의 지위가 미래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지각이 클수록 성별 집단 정체성이 낮았음. 이러한 결과는 남성우위의 성별 집단 관계에 대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줌. 이 결과는 또한 양성평등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에서 남학생들의 지위 합법성 지각을 낮추는 것이 성별 간의 경쟁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

■ 초등학교 여학생, 성별 집단 정체성 높을수록 성평등의식도 높아

-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경우, 성별 집단 정체성이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경향이 이후 중고교 급에서 그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초등학교 시기의 여학생들이 성별 집단 간 경쟁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성별 집단 정체성 이외의 요소가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주변의 압력 크게 느끼는 주관적 규범지각이 높을수록, 성평등 실천 저하

- 성평등 실천 및 성평등 행동에 있어서 ‘주관적 규범 지각’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학생의 주변 사람들의 영

향이 성평등에 부정적이거나 성차별적일 때, 성평등의식이 높더라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성차별적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약화시키고 성평등 규범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 성평등 행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성평등 행동의도 및 실천 저하

- 성평등 행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성평등 행동의도와 성평등 실천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성평등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식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해야 함. 이는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양성평등 교육에서 이러한 행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자신감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

## 바.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교육 내용은 좋아하지 않음

- 학교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는 남녀학생들 모두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호감 자체는 매우 떨어짐.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 방식이 대규모 강의이거나 방송을 통한 개별 강의로 학생들이 집중도도 매우 떨어지며, 심지어 이구동성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고백. 양성평등글짓기 또한 마찬가지로인데,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종이를 받고 두 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글을 써내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파주와동초등학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조로운 교수방식은 자칫 지루하게 만들기 쉬우므로 다양한 방식의 체험활동을 고안하여 학생들을 자극하고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가정의 성평등의식

- 가정은 여전히 성평등의식의 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평가됨. 가사참여도는 여전히 어머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맞벌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음. 학생들의 가사참여도는 아들 형제나 딸 자매보다 남매관계에서 뚜렷한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는 가정 내 남아선호사상에서도 동일. 여전히 아들이 있는 많은 가정은 남아선호의 경향이 강함. 차별의 대상이 되는 딸들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고 보고하였음.

### 3 정책제언

#### 가. 성평등의식 및 실천부문의 정책제언

##### 제안1)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규범 확산 방안 마련

본 조사에서는 학교 문화나 양육환경과 같은 환경적 영향이 성평등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성평등 실천의 중요한 촉진 및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평등의식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학교생활이나 미래 직장생활과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남녀 성별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에 미래 가정생활이나 성평등 행동 실천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조직이나 사회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인식이 성평등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압력이나 규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이런 점에서 학교, 교사, 또래 집단, 가족, 사회, 대중매체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성평등 규범이 확산되고, 이것이 성평등한 쪽으로의 행동 규제기능을 갖게 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는 성별요인이 차별이나 역할을 제한하는 기준 되어서는 안 되며,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대중매체들이 이러한 성평등 규범을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필요함.

## 제안2) 양성평등교육에서 성차별의식의 두 얼굴에 대한 민감성 교육 강화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는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고교시기에 성역할 분화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시기에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성평등의식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정적인 형태의 성역할 태도가 성차별적인 태도임을 간파하는 민감성 향상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특히 높은 성평등의식 속에는 온정적인 형태의 성차별의식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성평등의식이 높다는 것이 성역할 이분법적인 구도를 깨트리거나 재편하는 쪽으로 성평등 실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높은 성평등의식 속에서도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제거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의 성평등 실천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향후 성평등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온정적 성차별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거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은밀한 형태의 성차별적 태도, 행동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들을 변별할 수 있는 역량을 초중등학교 시기에서부터 키워주는 양성평등교육 및 정책 프로그램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제안3) 교사 대상 양성평등 연수교육 내용의 효과성 재검토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의 성평등 실천에 있어서 교사의 양성평등교육 연수 유무에 따른 효과는 앞으로 교사 대상의 양성평등교육 연수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우선, 교사 대상의 양성평등교육 연수는 교사의 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학생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학교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가진 학생 대상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지침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적 토대를 구축해 가는 일이 학교생활 속에 성평등 실천을 정착시켜갈 향후 과제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현행 연수교육의 프로그램 내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나. 제도적 차원의 정책 제언

### 제안1) 교육과학기술부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내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정책관을 설치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 우리와 문화적 풍토는 다르지만 스웨덴의 경우 양성평등은 먼저 남성의 시각이 먼저 변화해야 실현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남성의 시각변화를 위한 정부개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정책관 임명을 통해 지속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정책모니터링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스웨덴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양성평등정책관 임명을 노동부 산하에 두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교육과학부와 지자체별 교육청 내에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양성평등학교교육, 양성평등직업교육, 성평등을 위한 교사정책, 성평등을 위한 학부모교육 정책이 보다 일관성이 있게 유지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교육과학기술부 내에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설치되어 여성정책업무를 전담하였으나, 2007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폐지되면서 현재는 학생지원국 내 학생자치과에서 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기존에 한 개 부서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현재는 1명의 담당자로 인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지원의 영역과 범위 또한 축소조정되었음.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중앙부처에서 양성평등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양성평등 정책

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양성평등의 주제는 교육과정, 교원연수 등과 같은 배타적 영역이 아닌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교육정책의 전반에 녹아들어 가야함. 양성평등 전담부서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내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전달체계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현황 파악, 양성평등 교원연수의 현황과 실적 관리, 단위학교 성평등 자체진단에 대한 결과 분석, 학내 성희롱 성폭력 현황 파악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정책 결과를 수집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본부로서의 기능을 해야 함.

## 제안2) 시도교육청의 양성평등 전담인력 의무 배치

본 연구결과, 세종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17개 시도교육청의 업무분장상 양성평등업무가 별도로 분장된 곳은 8개에 불과함. 이는 과반수 이상의 시도교육청에서 양성평등정책은 업무의 내용으로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 업무분장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인력을 갖춘 시도교육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양성평등업무는 보건이나 생활지도과에 배정되어 있으며, 담당자 또한 양성평등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업무와 병행하고 담당하고 있음.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분장하는 양성평등업무라는 것이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별영향평가 업무 정도로 정책의 영역과 범위가 협소하여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 상의 양성평등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지자체의 정책 영역이 확대되면서 정책 주체 및 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과거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양성평등 전담인력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각 지역교육청을 거느리는 시도단위에서라도 양성평등 업무 전담인력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

### 제안3)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양성평등한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2009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강화될 예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학기당 이수과목 제한,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선택교육과정 확대 및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의 굵직한 변화가 예견되는데, 그 중에서도 각 단위학교의 재량이 늘어나 교육과정의 20%를 증감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수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학교별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도 강화되는데, 경우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정사항들이 성평등적이지 못할 우려도 제기됨.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립함에 있어 성 차별적이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갖지 못하도록 운영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함. 단위학교 체제로 들어가면서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일이지만,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 점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에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상에 성 차별적 내용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 교육과정 상의 성별 수혜현황과 남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등의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도 제안.

### 제안4) 사회과 과목에 양성평등교육시간 공식적으로 할당

양성평등은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남녀관계를 보는 생활태도형성에 있어 생각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중요 생활철학이라고 할 수 있음. 학교현장에서는 인권, 환경, 성교육, 성폭력 등 새로운 사회현안이 생길 때 학교

의 대응방안으로 주제별 특강형식으로 1회성 혹은 행사성격의 특별교육 과정을 많이 두고 있고 양성평등교육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위치설정을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의 근간성과 중요성에서 나오는 무게감은 특강으로 해소할 수 없는 중대사안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학습이나 생활과정 모두가 양성평등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현재의 입시중심 시스템하 한계 내에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과목에 시간이 편성되어 공식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할 때, 장기적으로 생활저변의 변화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제안5) 선도학교, 시범학교에서 발굴된 재미있는 사업이나 교육콘텐츠는 PPT자료화를 통해 일선학교로 파급**

선도학교, 시범학교에서 개발된 사업 중 괜찮은 내용은 교사의 품을 많이 요구하지 않고도 진행가능한 형식을 거쳐 단위학교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 시키는 노력이 요청됨. 예를 들어 경기도 모 초등학교의 경우 골든벨 형식으로 양성평등, 성희롱, 인권을 주제로 “젠더벨”이라고 명명하여 퀴즈대회를 기획했는데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행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호응도면에서 검증이 된 프로그램은 퀴즈문제, 보거나 답,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되는 ‘퀴즈키트’로 제공될수 있다면, 젠더벨의 대중화가 가능할 것이며,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식고양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임.

#### **제안6) 학교모임에 아버지참여율 높은 학교장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아버지참여문화 확산 필요**

학교모임에는 주로 어머니가 참석함. 아버지가 참여하는 경우는 학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들을 참여시키려는 의지를 가질 때 확실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본 조사에서도 향후 자녀부부의 경제활동형태를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90%가 맞벌이를 희망하고 있



다는 점에서도 확인되지만, 지금도 맞벌이부부의 비율이 상당하고 향후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한 추세인데, 학교모임참가에 대한 어머니편향적인 태도에 대한 수정이 요청됨. 특히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중요요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학교에 아버지모임을 활성화하는 학교장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학교참여율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

조사 결과, 남녀학생 모두 학교의 평등문화와 차별문화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인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의 학교의 성평등문화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여학생들의 성평등문화 여부에 따른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음. 학교내의 문화적 규범이 학생들의 성평등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 4 기대효과

- 성평등한 초중등학교 문화 조성을 통한 성평등 의식과 실천의 연계성 강화
- 온정적 형태의 성차별의식을 고려한 양성평등의식 향상의 필요성 제고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방향성 제시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과,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학교

**관계부처 :**